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어린이 받아들이기 성경: 마태복음 18장 1-6절

Tag: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18:1-6)

복음서에 특히 어린이 관련 말씀들이 많은 편이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어린이를 사람취급하지 않는 시절이었는데, 어린이에게 대해 이처럼 소중히 여겼다니 놀라운 일이다.

물론 어린이는 어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하고 지식이 많지 않고, 철이 없으며, 영악하며, 단순하다.

그러나 장점도 많은데, 개성이 뚜렷하고,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목에 상관없이 자기표현이 분명하고, 창조적이고, 순전하며, 순응적이며, 겸손하며, 신선한 반응을 한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 특성이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

1. 천국에서 큰 자

마침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평등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되겠지만, 천국에서도 큰자와 작은 자가 있다.(아무튼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갈등 관계가 아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는 제일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천국에서 인정받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권세와 영광을 차지한 자.

-천국에서 모범이 된 자.

-천국에서 존경받는 자.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자신을 낮춘다는 뜻은 힘이 없다, 지식이나 지혜가 없다, 지위가 없다, 권한이 없다, 권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모든 것이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식과 지혜와 지위와 권한과 권세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왜냐면 이런 사람이 가장 일을 잘 하기 때문이다. 지식이나 지혜는 있는데 권한이 없다면 일 못한다. 권한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도 일을 못한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못하는게 아님.)**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이런 허드렛일을 해야 하냐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필요 없다.

(시골 교회로 부임하게 된 김채섭목사(양문교회) 사모 이야기)

-그러나 많은 지식이 없어도, 많은 권한이 없어도, 많은 지혜가 없어도 그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 섬기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는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자란, 다른 사람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이다.

2.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개정판이나 개역개정판은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막10:15;개역개정판)

1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receive; not service)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막10:15;표준새번역)

-실제로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받아들인다.

-어린이들은 전도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다른 의도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른들에게 하셨다.

-고로, 어른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 말씀은 어린이를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어린이였던 자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세상 죄악을 알아버린 어른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것들은 염두에 두지 말고 그저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시라는 말씀.

-헌금 생각하지 말고, 주변 시선 생각하지 말고, 지은 과거 생각하지 말고, 상처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서.

-일단 받아들이고, 복음의 맛을 본 다음 생각을 정리해도 된다. (강만중집사 처럼)

3.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라(받아들이라) 섬기라.

어린이를 섬기고 대접하라. 그는 연약한 자이고, 무지한 자이고, 보

살핌이 필요한 자이다.

-내 새끼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저 물 한 모금이라도 그를 섬기라.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receive)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막9:37)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계선교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영접해야 할 이 한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해야 할 한 아이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세계의 어린이를 입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냈다. 그러면서 그 어린이의 가정을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남한은 다행이나 북한과 전 세계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방치되어 있다. 수많은 어린이재단과 어린이구호관련 단체들이 난립되어 있다. 이들의 노고가 참 고맙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기만 해야 하는가?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세계어린이부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여성이 아니다. 여성은 어린이를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여성이다.

남성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는 더 이상 남성이 아니다. 남성은 가정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남성이다.

한국은 세계를 향해 일해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 가정은 세계의 영접해야 할 어린이를 영접해야야 한다.

왜냐면 세계의 정치인을 깨우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린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적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계몽의 대상이며, 양육의 대상이다. 그들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사육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방치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자들이다. 두 사람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잘 키워라. 그러면 그 한 아이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http://www.christiantoday.us/14462>

한국입양홍보회 최석춘장로.

어른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이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미래에 투자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모세의 고별설교

성경: 신명기 31장

Tag:

2.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놓으신 형벌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거스려 행하지 말고 순응하며, 다른 피할 길을 찾으라.

-얼마든지 다른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저주를 극복하라.

-엘리사 시절의 수넴여인처럼.

-그녀는 불임에 순응하며 엘리사를 위해 주밀하게 헌신하여 저주를 극복함.

6.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라.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10. 매 칠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아이들과 타국인까지 모으고 율법책을 읽어라;7년이 지나면 모든 채무에서 면제됨. 모든 채무가 7년만에 사라지므로, 7년 동안의 품삯이 어른 한명의 뭇이 됨. 이것이 경제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됨.

-어린이는 노동에서 해방됨.

-7년 품삯이 아니라, 평생을 부려먹을 수 있다는 악한 생각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다.

-어린이도 부려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악한생각.

-빨간머리 앤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끝에서는 너무 다른 복을 차지하는 모습)

17.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우상섬김에 대한 재앙.

-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하실 것임.

-그들은 삼킴을 당할 것이다.

-이때에 경건한 자들은 믿음을 지키라.

-18.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